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2 Number 05 **05** 2014



성경 속의 노아 vs. 헐리웃 속의 노아

지난 3월말 영화 “노아(Noah)”가 미국 전역에 개봉되었다.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필자는 이 영화에 대하여 평을 해달라고 하는 메일을 몇 차례 받았다. 그러기에 거의 의무적으로 영화를 관람하였다. 개봉되기 전부터 미국의 각 창조과학 단체에서 이에 대한 혹평이 나왔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지만, 기대하지 않고 보았어도 실망뿐이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이 영화는 노아와 세 아들, 라멕, 므두셀라, 두발가인 등 성경의 인물을 등장시켰을 뿐이지 전체 내용에서 성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이다.

먼저 대표적인 미국 창조과학 단체인 AiG에서 요약한 성경과 대조되는 부분을 보

면 아래와 같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구절
태초에 아무 것도 없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 1:1
아담과 하와는 세 아들을 가졌다.	아담은 이 셋뿐 아니라 다른 자녀가 있었다.	창 5:4
아버지 라멕은 노아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죽는다.	라멕은 노아가 595살까지 즉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까지 생존했다.	창 5장 족보
야벳이 노아의 막내아들이다.	함이 노아의 막내 아들이다.	창 9:24
야벳이 까마귀를 날린다.	노아가 까마귀를 날렸다.	창 9:7
하나님이 빅뱅과 진화과정을 사용하여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창조하셨다.	창 1장
인간이 땅에게 행한 일 때문에 심판 받는다.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로 인해 심판 받는다.	
노아는 “무고한 것들(동물을 의미)” 만을 구원시키고 사람은 홍수 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목적이다.	노아는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다. (자신이 인류의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님)	히 11:7; 창 6:19-20

위에 언급된 것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화는 성경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노아는 냉혈한 성격으로 묘사되며 가족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다. 방주 안(!)에서 썸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자 진노하며 자신의 가족이 인류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에 격분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도 모두 죽일 것이며 막내인 야벳(성경에서는 함이 막내)이 마지막 사람이다”라고 하며, 결국 태어난 손녀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한다. 이런 이유로 썸은 아버지 노아를 죽이려는 시도를 한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도 두 손녀를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 잡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자식들에게 “생육하라, 충만하라”고 축복한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 중에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던 두발가인이 영화에서는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방주에 노아 몰래 승선하기도 한다. 또한 두발가인은 아들인 함과 함께 노아를 죽이려고 한다. 영화 속에서는 오히려 노아보다 두발가인이 중요한 대사를 더 많이 한다. 예를 들면 두발가인이 함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을 한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의 이야기는 애니메이션으로 진행된다. 장면을 보면 빅뱅으로 시작해서 단순한 해양생물에서 각종 고등동물로 변하는 진화과정으로 진행된다. 전형적인 유신론적 진화론(!)이다.

또한 노아의 며느리 중에 셈의 아내만 방주에 탑승하고 야벳과 함의 아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영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데, 방주 안에서 셈의 아내가 딸 쌍둥이를 낳는다. 영화 안에서는 이들이 야벳과 함의 아내가 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우울하게 진행되며 재미만 따지더라도 끝까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루하다. 그러므로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즐기라고 추천하기도 민망한 영화다.

지금까지 헬리웃에서 성경 인물을 주제로 제작되었을 때 내용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부분 큰 수익을 올렸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남아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개봉되기 전에는 교회들도 매번 기대를 해왔다. 이번에도 많은 교회에서 단체로 관람했다고 한다. 성경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이번 영화 노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경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 적은 것이지만, 헬리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이다.

필자는 영화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각 나라에 많은 홍수전설들이 남아있다. 이들은 홍수심판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모든 전설들은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고 변질되었다. 그 전설들은 왜 왜곡되었을까? 처음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나 셈, 야벳, 함은 손주나 자식들에게 전달할 때는 ‘사실’을 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며 그 사실보다는 흥미위주로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들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번 영화를 보며 그런 상황이 그러지는 듯했다. 그리고 사실만이 적힌 성경을 남겨놓을 수 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다.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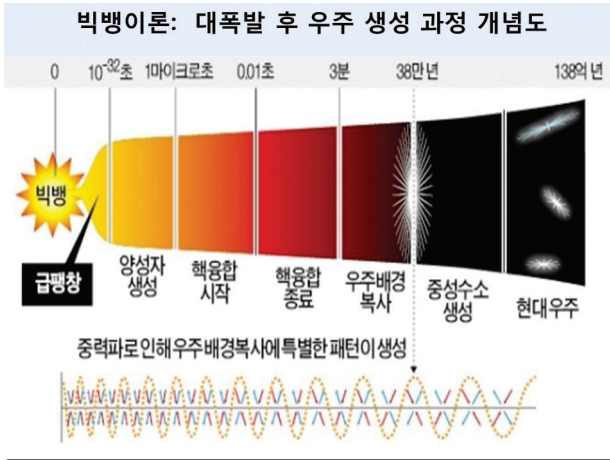
성경을 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헬리웃에게 하지 말자. 성경을 제대로 보도록 맡긴 유일한 곳 바로 교회가 말아야 한다. 이번 영화에서 다시 한 번 교회의 역할을 확인하길 기대한다. 영화 노아는 “성경 속의 노아”가 아니라 “헬리웃 속의 노아”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중력과 발견,

우주 급팽창과 빅뱅의 증거인가?



한다. 하지만 엄청난 우주 공간의 반대편까지 열이 어떻게 교환되어 같은 온도가 될 수 있던 말인가? 대폭발 결과 복사열이 우주 공간에 평형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론물리학자 구스(Alan Guth)는 우주팽창(Cosmic inflation) 이론을 제안하게 되었다(1980 년).

여기서 팽창은 빛보다 훨씬

우주기원에 대한 자연주의 빅뱅모델은 약 138 억년 전에 초밀도 초고온 상태의 점이 대폭발 하여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는 개념이다. 이 모델에 대한 문제점과 많은 과학자들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에 상세히 다룬 바 있다 (참조: 두란노 출판 “창조주 하나님” 122-130 쪽, CREATION TRUTH Newsletters 11-2008, 03-2012).

‘우주배경복사(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란 은하들의 배경이 되는 우주 공간에 고르게 퍼져 있는 초단파(microwave) 영역의 복사열이다. 빅뱅모델은 이 우주 공간의 복사열이 138억 년 전 빅뱅의 흔적 즉 폭발이 남겨 놓은 열 (빛)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빅뱅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우주의 서로 정 반대편에서 관측되는 복사열이 정확히 동일한 온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수평선문제, horizon problem).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가 되려면 공간의 물질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 받아야

더 빠른 속도의 급팽창을 말한다. 이 팽창은 대폭발(빅뱅) 직후 10-36초에서 10-32초의 찰나에 이루어 졌고 그 후 느려진 속도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리 말 하지만 이는 다른 분야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추론에 불과하다.

지난 3월 17일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연구센터는 남극에 설치된 전파망원경, 바이셉2(BICEP2)를 통해서 우주 탄생의 핵심 증거가 되는 중력파를 탐지하는데 성공했다고 인터넷 생중계로 대대적인 발표를 하였다. 여기서 중력파(gravitational waves)란 질량을 가진 물체가 고속 운동을 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파동으로 보는데, 이는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 나가듯, 질량이 있는 물체가 움직이면 그 물체를 중심으로 시공간이 움직이며 파동이 생긴다는 개념이다.

이 중력파에 대한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이론에서 중력

의 정체는 시간과 공간의 일체로 시공(space-time)의 곡률(뒤틀림)로 표현된다. 이 이론으로부터 중력파에 대한 존재는 예측 되었지만 일상에서 거의 물질과 중력이 상호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찾는 것은 꿈에 불과 했다. 하버드대 부교수 코백(John M. Kovac)은 “중력파를 탐지하는 것은 천체물리학계의 오랜 숙원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며 이번 발견이 “우주의 탄생을 이해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사용된 바이셉2는 편광신호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정밀도가 높게 제작된 일종의 전파 망원경이다. 우주 공간에 있는 전자기파 잡음을 탐지해서 그 속에서 미세한 편광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이다. 온도와 습도가 낮고 대기의 안정성이 높은 남극에 설치하였는데 지난 3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B-모드 패턴의 중력파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던 중력파를 처음 검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급팽창으로 발생한 중력파가 빛의 속도로 확산되면서 시공간에 곡률(뒤틀림) 현상을 일으켰고 이때문에 우주배경복사에 독특한 원형 편광 패턴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우주배경복사의 편광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중력파로 보이는 패턴을 발견한 것이며 시공간의 곡률(뒤틀림)을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또, 이 연구가 중력 파동의 모습을 실제로 형상화한 첫 사례이지만 이 B-모드 패턴, 즉 B-모드 양극화(polarization)라고 불리는 희미한 이 소용돌이 패턴 (faint swirly patterns)이 중력파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검증도 없이 빅뱅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발견으로 우주의 빅뱅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고, 얼마나 오래 전에 어떤 속도로 우주가 팽창했는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야단이다.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우주배경복사는 창조 첫째 날 만들어진 빛 에너지가 우주공간에 균일하게 존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주배경복사를 빅뱅의 증거로 해석 하지만 사실은 성경 기록과 더 조화롭다.

창조 첫 째날 시간-공간-물질을 창조하시고 나서 빛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그 빛으로 시공과 물질이 연합된 물질세계가 활성화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ore)로 빛 자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둘 째날 윗 물과 아랫 물을 나누면서 하늘(궁창)을 오늘의 우주 공간으로 퍼셨다. 이 때 시공간이 팽창하므로 넓어지는 우주에 전자기파인 빛에너지 또한 함께 퍼져 나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빛을 내는 광명체(히브리어로 마오르 maw ore)인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우주 공간은 열평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번 중력파의 발견을 가지고, 그동안 가설 뿐이었던 우주의 역사를 급팽창으로 부터 지금까지 상세히 기술할 수 있게 됐다고 공언하지만 이는 검증 없이 앞서가는 이야기며, 빅뱅가설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우주가 폭발로 이뤄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일 누가 서울 남산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그 화산재가 쌓이고 또 쌓여서 63빌딩이 만들어 졌다고 말한다면 모두 다 바웃을 것이다. 하물며 완벽한 기능과 엄격한 질서로 운행되는 태양계를 포함한 이 우주가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는 주장은 그 이야기와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한다.

어느 때 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 보다 높아진 이론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신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듯하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28:33)



창조과학탐사

신학생 창조탐사

지난 3월 17-20일 나흘간 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는 지난 2월 풀러 신학교 집중 세미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 신학교에서도 진화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교회의 리더가 될 신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석한 신학생들은 시중 아주 진지했으며, 성경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창조과학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임을 공감했습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를 마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Creation Science Training for Seminarians (CST, 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13명이 신청해서 지난 27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는 창조과학선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신학생들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학생 창조탐사



애틀란타 베다니장로교회

세미나

오클라호마 순복음중앙교회

지난 3월 28-30일 오클라호마 순복음중앙교회(담임목사 서승범)에서 최우성 박사의 인도로 3일간 5회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대학에서 2 학기의 강의를 들으신 담임목사님께서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돕기 위해 초청을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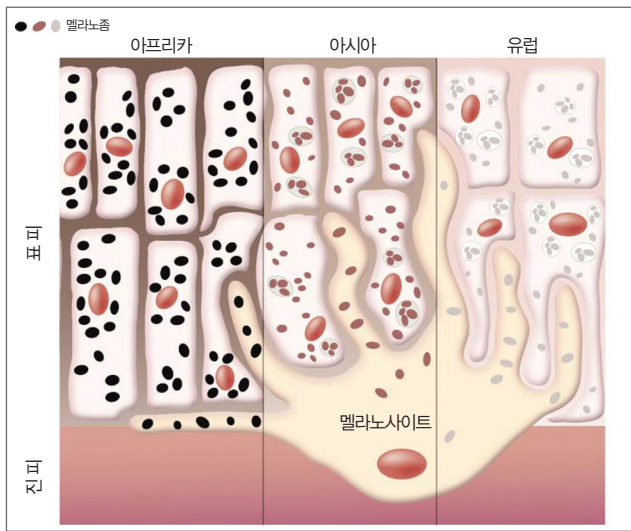
애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

지난 3월 28-30일 애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담임목사 최병호)에서 이재만 부회장은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우주의 기원, 동성애와 동성결혼, 성경을 믿는 과학자, 깨달아 알았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두 시간에 걸쳐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다니 장로교회는 오는 12월 마지막 주에 John Kim 박사님을 초청하여 2세들을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재만 부회장 Anza Borrego 사막 Field Trip 참가

지난 4월 5, 6일 샌디에고 동쪽에 있는 Anza Borrego 사막에서 Dr. Steve Austin이 인도한 Field Trip에 참가했습니다. Anza Borrego 사막은 창조, 홍수심판, 홍수 직후에 그랜드캐년을 만들었던 댐의 붕괴로 이루어진 퇴적물, 빙하시대 등의 성경의 증거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진대에 대하여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앞으로 한인들을 위해서도 창조과학탐사가 디자인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Q & A 시리즈(2) **인류의** 다양한 피부색은?

다양한 피부색

국제 연합 인구 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은 2012년에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었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이런 각 사람들은 동일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외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피부색이다. 성경으로 보자면 온 인류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직계 후손이다. 그리고 더 좁혀나가자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홍수심판 때 방주에 탔던 노아의 직계 후손들이다(창 9:19). 그렇다면 이 유일한 한 사람으로 인해 어떻게 피부색이 다양해 질 수 있었을까?

피부색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먼저 피부색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만약 백인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수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하자(백인, 흑인, 황인 식의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상 여기서는 이 표현을 사용한다). 이 부부는 햇빛에 노출되어 피부가 검게 그을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 백인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은 어떤 피부색을 가졌을까? 당연히 밝은 색일 것이다. 한편 그 옆 부족에서 다른 백인 선교사 부부가 수년간 사역을 한 뒤 백인 딸을 낳았다고 하자. 역시 밝은 색의 피부를 가진 딸을 낳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과 딸이 성인이 되기까지 아프리카에 살았다면 각각 피부가 검게 되었을 것이다. 이 검은 피부를 가진 두 백인(!)이 서로 만나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다면 그 아이의 피부는 어떨까?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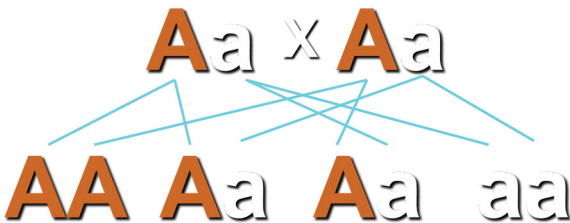
연히 밝은 피부를 가졌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 정리해두어야 할 것은 백인이 아프리카에서 오래 산다고 해서 검은 피부를 가진 자녀를 낳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점이다.

피부색은 일차적으로 피부색소로 결정되는데 이 색소를 멜라닌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멜라닌은 암갈색을 띄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때 멜라닌이 더 많이 합성되어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것이다. 멜라닌은 피부 아래 위치한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며 특히 이 세포 안에 있는 멜라노솜이라는 미세한 주머니가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은 이 멜라노솜의 색, 크기,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환경에 따라 멜라노솜에서 멜라닌이 얼마나 합성되느냐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예처럼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면서 멜라닌이 더 많이 합성되어 피부가 검게 보일지라도 난자나 정자에 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밝은 피부의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부색의 결정에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유전자의 재조합의 이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유전자의 재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자.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멜라노솜의 크기와 숫자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30여개 정도를 발견했다. 이 30여개의 유전자가 조합을 이루며 다양한 피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일단 한 개의 유전자의 재조합의 경우만 따져보자. 어떤 유전자 A를 Aa로 표기 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여기서 대문자 A는 더 큰 멜라노솜을 내고, 소문자 a는 더 작은 멜라노솜을 내는 유전자다. 만약 Aa를 가진 남자가 동일한 Aa를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경우, AA, Aa, Aa, aa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여기서



A 유전자 하나만을 고려할 때 두 개의 대문자를 가진 AA를 가진 사람이 가장 어두운 피부를 두 개의 소문자를 가진 aa의 사람이 가장 밝은 피부를 가질 것이다.

만약 두 개의 유전자를 고려하면 표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다. 다소 복잡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대문자가 많을수록 어두운 피부색을 소문자가 많을수록 밝은 피부색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AABB를 가진 사람이 가장 어두운 색의 피부를 aabb의 사람이 가장 밝은 색의 피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결혼할 수 있다. 대문자 소문자 문제지 원래 결합할 수 있는 알파벳 A와 B는 양쪽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전자 재조합 표를 주목하여 보자. 피부색이 다양해지는 유전자 재조합 과정에서 새로운 유전자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AaBb라는 유전자의 조합으로만 이렇게 다양해진 것이다. 추가된 유전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검은 피부는 소문자 a나 b를 잃어버리며 발생한 것이며, 밝은 피부는 대문자 A나 B를 잃어버리

며 발생한 것이다. 극단적인 피부색으로 갈수록 더 많은 유전자를 잃어버려야 한다.

여기에 하나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 피부색이 다양해지는데 어떤 진화론적인 사고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피부색의 변화가 진화과정이라면 그 과정 가운데 유전정보의 추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다. 피부색의 다양성은 유전정보가 획득되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정보가 손실되며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누군가가 처음부터 이런 피부색이 드러나게 할 유전정보를 이미 넣어놓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30개의 유전자를 모두 조합시키면 어떻게? 훨씬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대문자가 많으면 얼굴이 더 어둡고 소문자가 많으면 더 밝게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유전정보가 손실되며 일어난다. 그러나 역시 서로 결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모두 같은 알파벳(서로 조합할 수 있는 유전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유전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첫 세대부터 다양한 피부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리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피부색이 다양할 뿐 모두 자신들을 닮았을 테니까. 만약 사람이 생김새도 피부색도 모두 같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서로 알아 볼 수도 없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람이면서 단 한 사람도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기막힌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부색이나 생김새의 다양성은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 처음부터 심어놓으신 유전자들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단지 대문자가 많느냐? 아니면 소문자가 많느냐 문제일 뿐이다.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왜 피부색이 나라에 따라 불연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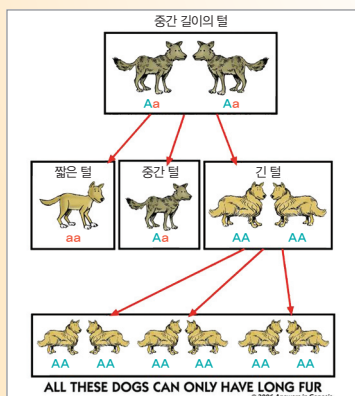


실제로 우리의 궁금증은 피부색이 유전자의 재조합 과정에 의해 다양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륙과 지역과 나라에 따라 불연속적인 피부색의 차이를 보이는가’일 것이다. 실제로 사진의 어린이들이 보여 주듯이 피부색으로 그룹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나라에 따라 피부색이 어느 정도 불연속적 구분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동물들의 다양함

동물의 예를 먼저 들어볼 경우 훨씬 이해가 쉬워진다. 한 종류 안에서 생물들의 모양이 뚜렷이 구분되기 위해서는 “격리(isolation)” 과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홍수 동안 방주 탑승했던 두 마리의 개가 홍수가 끝난 후 나와서 새끼를 낳았다고 하자. 그림에서 A는 긴털의 유전자며 a는 짧은털 유전자이다. 그 암수 한 쌍의 개가 각각 Aa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서로 교배를 하면 그 새끼들은 AA, Aa, aa의 유

전자를 갖고 태어날 것이다. 여기서 AA를 갖고 있는 개가 가장 털이 길고, aa를 갖고 있는 개가 털이 가장 짧을 것이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들이 추위를 경험했다면, 털이 긴 개들(AA)은 추위에 괜찮았겠지만 털이 짧은 개들(Aa 또는 aa)은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이 두 그룹은 기후에 의해 서로 만날 수 없는 ‘격리’된 상태로 자신들의 독특한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서로 교배 될 수 있으며 개라는 종류는 바뀌지 않는다. 앞서 나눈 것처럼 A이나 a 유전정보를 잃어버리므로 다양



해지는 것이다. 털이 길어졌다고 유전정보가 더 추가된 것이 아니라 a를 잃어버리며 길어진 것이다. 이런 과정을 자연선택에 의한 격리라고 부른다.

인류가 겪은 격리

사람의 피부색에 대한 구분도 격리가 제대로 설명되어야 설득력이 있다. 이점이 진화론적인 접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격리 사건을 말하고 있다. 바로 홍수 심판 이후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이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땅에 충만하라”(창 9:1)고 명령하셨지만 얼마 되지 않아 “흠어지지 말자”(창 11:4)고 하며 탑을 쌓은 사건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을 흠으신 것이다(창 11:7, 8). 그리고 그 흠으시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있다. 개역개정에는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창 10:5)라고 번역되어 있다. 영어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되어있다. “every one according to his language, according to their families, into their nations” 즉 “각기 언어에 따라, 가족들에 따라, 그들이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지 않게 하시되 가족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갑자기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 피부색을 포함한 서로 닮은 가족끼리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다른 가족과는 만날 수 없는 “격리”가 일어난 것이다.

이 흠어지는 상황 속에서 멜라닌이 적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 비해 햇빛이 불편했을 것이므로 극지방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멜라닌이 많은 사람은 적도지방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홍수심판 이후에 발생한 “추위와 더위”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즉 언어로 인한 격리에 환경에 의한 격리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지 절대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인도 사람은 적도와는 거리가 있지만 아프리카의 적도지역에 사는 사람만큼 어두운 피부색을 보여준다. 또한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같은 적도지역이지만 아프리카의 적도지역 사람들만큼 검지는 않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햇빛에 노출이 될수록 멜라닌이 많이 합성되므로 피부가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실제 피부색을 알기 위해서는 어른보다는 태어났을 때의 아기 피부가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태어났을 때의 적도 지역에 사는 아기들은 그 부모들에 비하여 밝은 색을 나타낸다. 그러나 자라면서 멜라닌의 합성으로 다른 지역 사람에 비해 더욱 검게 되어 훨씬 구분되어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성경에는 피부색을 통해 구분되는 인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인류는 유전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평균 유전자 차이는 0.12%에 불과한데 이는 소위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지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 더 검고 더 흰 뿐이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one blood)으로 만드셨다”(행 17:26), “한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고 말한다. 이 말씀은 인류가 아담의 한 혈통에서 비롯되었으며, 특별히 노아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성경의 인류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함이 흑인의 조상?

피부색에 대하여 많은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다. “셈은 하인, 함은 흑인,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다” 식의 생각이다. 이는 아마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이때 노아가 내린 저주로 인해 함의 후손인 흑인들이 야벳의 후손인 백인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식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홍수 이후 당시의 상황으로 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자녀들은 아무리 멀어도 사촌과 결혼했을 것이다 (근친결혼에 대하여는 앞선 4월호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음). 그러므로 이 자녀들도 서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셈, 함, 야벳은 그 모든 손주들에게 친할 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한 동안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셈, 함, 야벳은 홍수 이후의 모든 후손들의 직계조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노아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으며,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흑인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흑인들이 어려움을 받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노예제도를 합당화하려고 성경을 그릇되게 사용한 예이다. 함이 흑인의 조상이라는 것도 틀린 말이며, 노예제도 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다.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모집 창조과학탐사

아래 창조과학탐사의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5월 15-17일(목-토) (2박 3일) - 창조과학탐사

- 출발: 충현선교회
- 경유지: 그랜드캐년, 세도나, 모하비 사막
- 인도: 이재만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 참가비: 1인당 \$320 (2인 1실 기본)



6월 17-19일(화-목, 2박 3일) - 빙하시대탐사

- 출발: 추후 공지
- 경유지: Yosemite, Owens Valley, Crowley Lake, Alabama Hills
- 인도: 이재만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 참가비: 1인당 \$340 (2인 1실 기본)

창조과학 탐사

간 증

7/15-17, 2013

설레임으로 왔다가 절대 벽찬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세대의 헛된 이론들 진화 앞에 다윗처럼 당당히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도록, 창조과학이라는 물맷돌 다섯개를 집어 드는 순간 순간들이었습니다. - 이연비 전도사 <네이퍼빌 시카고 온누리교회>

막연하게 생각했던 창조과학에 대해 이번 계기를 통해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혼자 하는 것이 미안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누리 교회와 얼바인 온누리 교회의 후원으로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신철 목사 <새희망 선교교회>

창조에 대한 단순한 믿음에서 과학적 증거와 더불어 모든 역사적 뒷받침들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기대 되는 것은 이후로의 나의 설교 현장에서의 담대함 일 것이다. 마음이 설레인다. 창조론의 가장 큰 무기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얼마나 큰 무기이고 축복 인지 새삼 눈시울이 뜨거워 진다. - 이현철 목사 <파사데나 장로교회>

오랫동안 의문학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았던 저에게 정말 소중한 진실을 알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진실의 시간에서 창조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바탕으로 저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우 집사

수고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후원해주신 온누리 교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강의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연과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목회자가 되며, 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증인 성경을 더욱 사실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상운 목사 <런치버그 한인교회>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다면 21세기 에는 '창조과학'이 있다" 교육 사역을 하며, 또한 신학교에서 학업을 하며 늘 한 가지의 허전함을 가지고 있었던 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창조탐사를 통하여 그것이 무엇 인지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사역과 교육에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를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강경숙 전도사 <사랑의 빛 선교 교회>

저는 지질학과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마다 내가 배운 수 십억 년의 지구와 성경의 내용들이 일치 되지 못하고 멧혀 있었던 것 들이 이번 탐사를 통하여 노아 홍수의 증거인 그랜드 캐년 등을 보고 배우며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안명호 집사 <원천교회>

기대하고 바랐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제게 보여주시고 확신케 하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진화론의 거짓에 휘둘리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인양 믿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차세대에 힘껏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들이 모든 세상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두가 돌아올 수 있기를 그 일에 더 힘껏 소리를 높여야겠다고 다짐함



니다. 창조주이신 아버지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 문혜원 권사

지난 5월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열린 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탐사여행에 꼭 참석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을 통하여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현장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창조에 대한 강조, 교육이 무엇보다도 선행 되어야 함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 이대학 선교사 <몽골>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믿고 있었는지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성경을 통하여 봐야 함을 도전 받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후대에 자라나는 세대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전수해야 함을 더욱 뜨겁게 도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 진순녀 선교사 <몽골>

아주 중요한 결론을 간단한 문장으로 반복 하면서 명쾌하게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멀리 때문에 늘 고생하여 이번 일정에서도 걱정했는데, 전혀 멀미 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빙하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쉬운 마음입니다. - 문현숙 집사 <동산 침례교회>

오래 전부터 이제만 선교사님의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지난 15년 동안 250여 차례나 지속되는 비밀을 알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비밀을 풀 수 있었습니다. - 정병갑 집사 <부산 부민교회>

하나님의 실재 하심을, 심판의 흔적을 통해 보고 느끼고,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큰 감동이 일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가 나의 신앙에도 터닝 포인트가 되어, 사실이며, 역사이며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세상에 선포하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 안소라 <시카고 네이퍼빌 온누리교회>

성경이 정말로 사실이며 그에 대한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오고 싶었지만 같이 오지 못한 네이퍼빌 시카고 온누리교회 - 다운타운 캠퍼스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 손기섭 <네이퍼빌 시카고 온누리교회>

구약을 하나의 역사서로, 다른 설화와 같이 인식을 하고 기존의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진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교과서는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 노아 홍수를 배우고 실제 그랜드 캐년에 가서 홍수의 증거들을 보고 이 후 세미나를 통해 구약이 사실이고 성경 전체의 완벽함에 옳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 이규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백광혁 <글렌데일 그레이스 교회>

이번 탐사를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화론의 패러다임에 의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지배 당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창조 탐사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 Daewie Kim

2014년

5/2-8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9-16 창조과학탐사 (선한목자교회), 이재만, 최우성
 5/14 포모나인랜드교회 (이재만), CA
 5/15-17 창조과학탐사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5/22-2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5/23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최우성), CA
 5/26-29 창조과학탐사 (시애틀형제교회), 최우성
 5/31 순회선교단 (이재만), CA

6/1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6/6-8 일신장로교회(이재만), CA
 6/8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CA
 6/12-14 빙하시대탐사 (오렌지한인교회), 이재만
 6/15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6/16-20 창조과학탐사 (성은장로교회), 김선욱
 6/17-19 빙하시대탐사 (뉴욕퀸즈한인교회), 이재만
 6/20-27 창조과학탐사 (햇볼 트리니티 CEO School), 이재만
 6/22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CA
 6/23-25 창조과학탐사 (주님의빛교회), 김선욱
 6/30-7/3 창조과학탐사 (몽고메리 늘푸른 장로교회), 최우성
 6/30-7/3 창조과학탐사 (뉴욕신일교회), 이재만

7/4-6 빙하시대탐사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김선욱
 7/7-10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 이재만
 7/18-21 창조과학탐사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